

전남 지자체 재난지원금 나눔 확산

목포·완도 공직사회 기부 잇따라
여수 정치·경제계 등 지도층 앞장

여수시에 이어 목포시와 완도군에서도 재난지원금 기부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5일부터 재난지원금으로 현금 10만원씩을 모든 시민에게 개별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목포시는 공직자로서의 모범과 고충 분담을 위해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6급 이하 직원은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마스크 전달, 방역물품 구매 등에 활용되거나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된다.

완도군도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6급 팀장 이상 공직자들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착한 기부 운동'에 동참한다.

이 운동은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긴급회의에서 신 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고 앞장서면서 시작됐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재난지원금(완도사랑상품권)을 수령하고 완도군행복복지재단에 기부하면 된다.

여수지역은 공무원을 넘어 사회지도층으로 재난지원금 기부가 확산하고 있다.

권오봉 시장은 개인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합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놓고 갑니다! 힘내세요!" 문구를 쓴 사진을 공개,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국회의원과 최무경 전남도의원, 박용하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송대수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이사장, 김해룡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동익 전남수산업경영인 연합회장 등이 잇따라 기부에 동참했다.

여수시 국장급 이상 간부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완도군 간부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착한 기부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여수시의회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아 재래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등 사무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여수상공회의소와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도 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은 이달 말까지 지급하는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만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된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진도군도 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진도군도 가세했다.

7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5일 진도군의회가 제 266회 임시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진도군은 모든 군민에게 설 이전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진도군은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예비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이날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 전체다. 신청 기간인 8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분증과 가구별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가구당 수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진도아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모든 군민이 설 이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무안군, 고부가가치 항공정비산업 본격 육성



무안군과 세한대학교, ㈜무안에어로테크닉스는 지난 4일 항공정비(MRO) 분야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산·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항공정비(MRO)는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점검(Overhaul)을 통칭한다.

항공기는 비행 전·후 일상점검과 기체 안전성에 대한 동체·날개·배선 등의 상세점검, 항공기를 전체적으로 분해·수리·조립하는 종합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동신대학교와의 업무협약에 이은 두 번째 협약으로 항공정비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군은 앞서 지난 2018년 항공산단 조성을 위해 리투아니아 항공정비회사인 FL 테크닉스와 입주의향(MOA)협약을 체결,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산단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3년부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부가가치 항공정비산업을 무안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앞서 지난 2018년 항공산단 조성을 위해 리투아니아 항공정비회사인 FL 테크닉스와 입주의향(MOA)협약을 체결,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산단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3년부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부가가치 항공정비산업을 무안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안군은 앞서 지난 2018년 항공산단 조성을 위해 리투아니아 항공정비회사인 FL 테크닉스와 입주의향(MOA)협약을 체결,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산단 조성 공사에 들어갔다.

무안군 관계자는 "2023년부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부가가치 항공정비산업을 무안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

태양광·해상풍력 이익 주민 공유 신안군, 탄소 중립 중심지 '우뚝'

박우량 군수,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서 사례 발표 호응

박우량 신안군수가 '2050 탄소 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에서 풍력발전 모범사례를 발표, 큰 호응을 얻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에 온라인으로 참석, 주민 이익 공유 풍력발전 사례를 발표했다.



<사진>

'2050 탄소중립'은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를 지역분권형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의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주민 참여에 달려 있고, 그 중심에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이 자리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18년 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이익 독점 방식을 탈피하고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은 조례 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8.2GW 해상풍력발전 완료시 연간 3000여 억원의 군민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금액은 신안군민 1인당 연간 600만원에 해

당한다. 신안 8.2GW 해상풍력은 정부의 2030년까지 목표 48.7GW의 16%에 해당한다.

전남도 블루이코노미의 핵심사업이며, 전남 서남권 제2의 경제발전 도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2GW 해상풍력은 민간투자 48조원, 기업유치 40개, 상시일자리 4000개 포함 직간접일자리 11만7000개 등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박 군수는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적자원인 태양광과 바람 등을 이용한 개발이익은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맹견 주인이십니까? 보험가입 의무입니다"

영광군, 12일까지 미가입 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영광군이 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다.

영광군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맞춰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가입 대상 품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총 5종이다.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발된 견주

는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먼저 동물 등록부터 해야 한다. 이후 맹견 소유자 교육을 수료한 후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맹견보험 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잇달아 상품을 출시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